

A	구개열을 포함한 한국의 탈 김재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p>구순과 구개열은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선천성기형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한 질환이다. 기원전 이집트 미이라에서 발견된 것이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환자이었다.</p> <p>이토록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존재하였고, 인간 사회에서 서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 안면부위에 나타나는 이유때문에 문화적인 유물에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다.</p> <p>기원후 12년으로 추정되는 멕시코에서 발견한 도자기 공예품에서 구순을 볼 수 있었고, 기원후 200-400년경의 잉카제국의 사실적인 조각품에서도 볼 수 있었다. 동양에서는 기원후 390년경 진나라 와 당나라 초기 문서에서 구순열에 대한 것과 그 수술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다.</p> <p>예술적인 민족성을 가진 한민족에서도 사실적인 구순열을 다양한 형태로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민속품중에서 찾은 탈을 소개하고자 한다.</p> <p>한국에서의 전통적인 탈은 종이나 바지를 주원료를 사용하여 재료적으로 내구성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탈이 갖는 일회성 놀이적 요소 때문에 장기간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매우 드물어서 오랜 역사에 비해 공통적인 형태로 형상화된 한국의 탈중 그간 발견한 10개의 탈을 소개하고자한다.</p>	

A	백서에서 실험적 치아이동시 치조골 흡수에 미치는 Bisphosphonate의 영향 최진휴, 김종철.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p>교정치료시 고정원으로서 사용되는 치아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골흡수 억제 물질인 Bisphosphonate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자는 백서에서 교정적 치아 이동시 Bisphosphonate제제중 하나인 Etidronate를 투여할 때 용량에 따라 파골세포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독성여부를 알아보고 또한 교정력을 가함과 동시에 Etidronate를 투여했을 때에도 골 흡수 억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중 260-350g의 성숙한 Sprague-Dawley계 웅성 백서 72마리를 정상군(장치비장착 + 0.9% NaCl), 대조군(장치장착 + 0.9% NaCl) 및 네 Etidronate투여군(0.8mg, 4mg, 20mg 그리고 100mg) 으로 분류하였다. 각 실험군은 교정장치 장착 1일, 3일 그리고 7일째에 각각 희생시켜 혈청 Acid phosphatase(ACP) 활성도와 세포 생활력(cell viability)의 측정에 사용되는 Lactate dehydrogenase(LD)의 활성도를 생화학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각 실험군에 대한 파골세포 수 및 골흡수 정도를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p> <p>Etidronate는 생체에서 다량이 투여되더라도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파골세포의 형성을 촉진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이동시 나타나는 골흡수를 억제시켰고 교정력을 가함과 동시에 투여될때도 골흡수는 억제되었다. 그러나 골흡수 억제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약물이 간격을 두고 재 투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약물의 용량에 대한 효과에서는 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기준량 이상의 용량에서는 골흡수 억제효과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p>	